

**이** 어령(前 문화부 장관·사진)씨가 한·중·일 세나라의 문화 코드를 읽는 작업의 일환으로 <사군자와 세한삼우>를 출간했다. <소나무> <대나무> <국화> <난초> <매화> 등 총 5권으로 이루어진 <사군자와 세한삼우>는 한중일 3국이 역사적으로 공유해 온 대상물의 상징과 이미지를 비교해 그 차이와 공통점을 밝혀내고 있다. 10월 10일 중앙일보 고문실에서 만난 이어령씨는 “사군자(매란국죽·군자에 비교되는 네가지 식물)와 세한삼우(송죽매·겨울에도 푸른 식물)를 유교문화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잃어버린 불교상징을 찾기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interview** '한·중·일 문화코드 읽기...' 출간한 이어령 前 문화부 장관

## “사군자와 세한삼우는 불교 상징”



▲<한·중·일 문화코드 읽기>는 동북아 세 나라의 역사를 관통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 세 나라는 3000년 동안 함께 나눠 온 문화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문화적 가치가 편향되고 왜곡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공유해 온 구체적인 대상물의 상징과 이미지를 종교, 사상, 미술, 공예, 민속, 생활 등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며 세 나라의 문화 코드를 읽어냈다. 3국의 문화를 알아야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이 이뤄진다. 즉 영토분쟁 등 서로 국적이 얽힐때 해결방법이 나온다는 말이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문화라는 말인가?  
-지구촌은 문명과 문화를 토대로한 다원적인 세계구조도 변화해 가고 있다. 이미 우리는 유럽이 초국가 형태의 유럽연합 탄생을 통해 문화의 공유와 그 정체성이 정치 경제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파워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았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서 있는 문화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동북 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중화사상과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 같은 일국 중심의 지배 이론을 잘 파악한 뒤 3국의 문화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 경제나 영토보다 시급한 것은 문화강국이 되는 것이다.  
▲3국의 공통문화중 불교를 빼놓는 얘기가 힘든 것이 아닌가. 사군자 및 세한삼우와 불교와의 관계는?

-포용적인 불교가 있었기에 동아시아에서는 여러 문화가 공존하며 발전할 수 있었다. 각 종교들이 얽히면서 문화가 강해졌다. 이런점에서 동아시아 3국 문화의 중심은 불교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교를 상징하는 꽃은 매화이다. 그런데 유교의 대표적 경전인 <논어> <맹자>에는 매화가 단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성리학의 이념이 문인화의 묵매(墨梅)로 표현됐다는 것 뿐이다. 그런데 그 묵매는 바로 선승인 증인 스님이  
**문화 정체성이 정치·경제 이끄는 '파워'로 3국 문화 알아야 동북아 평화·공존 이뤄져**

창시했다. 선사와 선문답에는 매화가 자주 등장한다. 대나무도 불교와 인연이 깊다. 부처님 당시 사찰인 죽림정사가 대나무숲에 세워졌다. 또 수행을 상징하는 죽비가 됐고 고승들의 지팡이로 이용됐다. 이렇듯 따지고 들어가면 사군자와 세한삼우는 불교의 상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왜 불교문화가 중요한가?  
-문화라는 것은 상당히 큰 파생력이 있다. 사군자와 세한삼우처럼 잃어버릴만한 불교상징을 찾은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불교적 이미지를 알아야 우리생활속에 있던 불교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를 종교로 전파하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한다. 생각의 발상을 한다면 문화창조는 쉽다. 쥐를 생각할 때 잡아야 한다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미키마우스를 귀엽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를 만드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1990년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며 종교간 화합등에 많은 역할을 했는데 불교계가 해야 할 시대적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개인적으로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린시절 불교를 접했다. 당시 지장보살의 중생구제 원력을 들으며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 불교는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는 부처대로 보살은 보살대로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불교내의 갈등을 접하면 마음이 아프다. 어떤 사상이나 문화는 세속의 제도도 다르다. 불교를 믿는 나하고 불교라는 종교의 이념이 일치하지 못하니까 갈등이 증폭되는 것이다. 하지만 불교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각 종파들이 하나뿐 '불교계'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불교계가 누가 봐도 보편적이고 신나는 문화를 창조하는데 힘써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연말부터 12간지에 나오는 동물과 해, 달, 구름, 냇물 등 자연과 천체, 차, 종이등을 계속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약 30권의 책을 예정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 월운 스님의 한글 '장아함경' 40년만에 새로 출간

1964년 동국역경원 발족과 함께 번역돼 출간된 <장아함경 1·2>이 현대에 맞게 새로 발간됐다. 동국역경원 원장 월운 스님(사진)이 옮긴 <장아함경>은 각 경전마다 각주를 상세히 달아 독자의 이해를 쉽게 했으며, 인명 지명 등 현대적 표기와 맞지 않는 용어를 새롭게 고쳤다. 또 빼알리본과 비교해 차이점 및 공통점을 실었다. <장아함경>은 제1~4분 30경전으로 구성돼 있다.  
대본경, 유행경, 전존경, 사니사경 등이 수록된 제 1분에서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과거 7불의 탄생·출가·수도(修道)·항마(降魔)·성도(成道)·전법륜(轉法輪)·열반등을 설명한다.  
제 2분에서는 4성(姓)의 평등, 티끌의 출현, 6방(方)에 대한 예법 등을 소개 한다. 수록경전은 소연경, 전륜성왕수행경, 폐속경, 산타나경, 중집경, 십상경, 증입경, 삼취경, 대연방편경, 석제환인분명, 아누이경, 선생경, 청정경, 자화회경, 대회경 등.  
제3분에서는 의도 바라문의 사된 견해를 타파하는 내용을 실었고 있다. 소개 경전은 아미주경 범등경 종덕경 구라단두경 견고경 나행범지경 삼명경 사문과경 포타비루경 노차경 등이다.  
제 4분에서는 <세기경>이 들어있다. 내용은 남섬부주(南隱淨洲)·전륜성왕·지 옥·아수라·4천왕(天)·3제(災) 등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장아함경>은 장아함(長阿含)·중아함(中阿含)·잡아함(雜阿含)·증일아함(增一阿含) 등의 4아함 중에서 비교적 장편을 모은 것이다. 22권(卷) 30경(經)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아함경>은 범어로 된 본(本)을 불타(佛)와 죽림불 스님이 후진(後秦) 홍시 15년(서기 413년)에 한역한 경전이다.



**장아함경 1·2**  
월운 스님 지음  
동국역경원  
각권 2만원

**yosiamun.com 추천도서**

- 마음이 곧 부처 해안스님, 밀알, 1만2000원
- 꽃을 들어 보여라 금하광덕, 도피안사, 1만5000원
- 하루 108배 내용을 살리는 10분의 가격 김재성, 아미미디어, 1만원
- 과학과 불교의 만남 황의현, 하늘북, 1만2000원
- 내면으로의 여행 산트카르시, 한국에디션, 1만1800원

도서주문 (02)2004-8219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본가는 언제나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명균

●전회문의 상담 현황  
서울시 종로구 명정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꽃을 들어 보여라** (말로 할 수 없을 때) **반야의 종소리**

금하 광덕 스님 지음 | 송암 역음  
도피안사 | 각권 1만5000원

**광덕 스님이 들려주는 '지혜의 삶'**

불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심을 증진시켜 주고, 수행자들에게는 자신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 번 비추어 보게 하여 초심을 일깨워 줄 책이 나왔다.  
안성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이 엮은 <꽃을 들어 보여라> <반야의 종소리>는 금하당 광덕 스님(1927~1999)이 직접 판막대장에서 뽑은 요긴한 말씀과 주옥같은 법문이 실려있다.

에 실었던 원고로, 상좌 송암 스님이 월보 인쇄과정이나 보존중에 분절되었거나 탈락된 것을 저서에서 일일이 찾아 보충하는 등 중간행목을 만들어 읽기 편하도록 엮어서 펴냈다.  
송암 스님은 “반야바라밀다의 빛을 열어 보인 광덕사상의 정본 교과서로 후학과 대중들의 훌륭한 새불교운동의 로드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책에 실린 주제는 ‘반야바라밀다’ ‘중생 성숙·국토 성취’ ‘기도’ ‘감사와 은혜’ ‘우리는 불자’ 등이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생활 활용 CD

**전문가용 하락리수 CD**

생년월일시를 입력 하자마자 사주 간지와 선천운 후천운을 즉시 확인하는 물론 12조건에 따른 길흉을 클릭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평생운에 이어 대상운 년운 월운 일운까지도 상세히 볼 수 있고, 황평결과 주역점, 궁합점수 등이 추가된 종합 주역운세책입니다. 아울러 토정선생의 토정수를 활용한 토정과(384호 또는 144호)를 얻어서 실제 년운에 대해해 볼으로써, 하락리수 년운과 비교해 운명을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가격 400,000원 총괄: 윤상철, 2006년 9월 증보.  
※ 구성: CD 1매, usb라, 프로그램 매뉴얼, 오운육기,궁합, 육축, 인쇄 가능

**전문가용 재미두수 CD**

삭일월 군시차 인명저장 등 각 학설에 따른 음선기능과, 재미두수 성요에 대한 각 서적의 내용 망라한 설명기능, 대한 소한 태세 월건까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미두수의 특성상 종합적인 운세풀이 설명은 없습니다. 기문과 육축의 포국보조프로그램 등으로 더욱 자세해졌습니다.

※ 가격 400,000원 총괄: 김재운, 2006년 3월 증보.  
※ 구성: CD 1매, usb라, 프로그램 매뉴얼, 명리, 기문, 육축, 육축의 명반, 인쇄 가능

**전문가용 육임 CD**

삼전조식된 육임식반과 더불어 9종 10과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통해 육임공부를 할 수 있고, 720과제에 대해 총운 공명 가정 행인 투자 등 각 25개 항목으로 나누어 육임점의 가부길흉이 단답형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육임점 123의 번들 CD를 보냈습니다.

※ 가격 100,000원 총괄: 윤상철, 2006년 6월 증보.  
※ 구성: CD 1매, usb라, 프로그램 매뉴얼, 기문 명반

문의 : (02) 2249-5630 / 563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국민 807-21-0290-497(윤상철)  
**www.daeyou.net**

하락리수와 재미두수를 함께 구입하시면 전문가용 육임 cd를 드립니다.